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 (마8:7)

◎ 4대 실천강령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 농어촌 100교회운동

농어촌 75교회와 결연 확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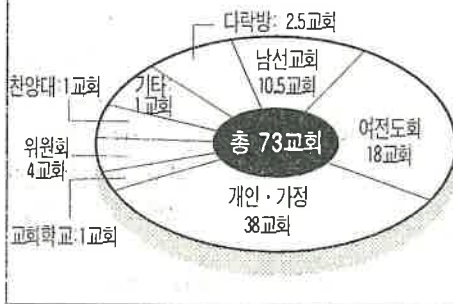
올해 '농어촌 미자립 100교회 돕기 운동(이하 100교회 운동)'은 농어촌 미자립 75개 교회와의 결연으로 확정됐다.

확정된 자매교회와의 결연 현황을 보면 개인 혹은 가정이 38개 교회, 여전도회가 18개 교회, 남선교회에서 10.5개 교회, 다락방에서 2.5개 교회, 찬양대에서 1개 교회, 위원회에서 4개 교회, 교회학교에서 1개 교회를 각각 후원하기로 했다. <4면에 관련 표>

우리 교회는 교회설립 3주년을 기해 도시화 추세 속에서 날로 심각해져가는 농어촌과 그곳의 교회들의 자립을 돕는 농어촌 100교회 운동을 시작하여 올해로 5년째를 맞고 있다.

후원자 혹은 부서에서 농어촌의 한 교회를 돕는 지원금은 월 10만원으로, 우선 농어촌 교회 목회자의 최저 생계비 부족분을 지원하는

▼올해의 100교회운동 후원자별 결연현황



것에 목표를 두었다.

우리교회가 후원할 수 있는 교회는 100교회 남짓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여 '한 몸된 교회관'을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향도자의 역할을 하고자

하는 것이 우리교회 100교회운동의 또다른 취지이다.

농어촌 교회의 재건과 부흥이 없는 민족 복음화의 길도 요원해 질 것이다.

차량관리위원회 여성도님 초대

차량관리부에서는 여자 차량관리위원을 기다리고 있다.

여자 차량관리위원은 주일 I·II부 예배를 전후하여 피켓과 깃발을 들고 횡단보도를 건너는 어린이와 노인들을 보호하는 일을 하게 된다. 봉사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10시 30분, 오전 10시 30분부터 12시 30분까지이며 4분의 여성도가 1조를 이루어 가능한 시간에 봉사하게 된다. 문의는 차량관리부나 사무국.

성경통독사경회 (2월 15 - 16일) 에 붙어

■ ... 구정 연휴 기간이 시작되는 내일부터 성경통독사경회가 시작된다. 자칫 흐트러지기 쉬운 구정 연휴 기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삶이 변화되며 신앙을 증진시키는 은혜로운 기간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기회다. 성경통독사경회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이모저모를 살펴본다. ... ■

언제 어디서 열리는가?

성경통독사경회는 2월15일(월) 오전 8시부터 16일(화) 오후 6시10분까지 이틀간 열린다. 장소는 서울교회 3층 예배실이며 강사는 본 교회 목사와 전도사. 참가비는 1만원이며 여기엔 식비와 간식비가 포함되어 있다. 교재는 개역개정판 성경을 사용한다.

어떻게 진행되며 준비는?

강사들이 강단에 올라 성경을 낭독하면 참가자들은 강사들의 인도에 따라 눈으로 글자

를 바로 보고 귀로 정확히 듣는다. 필요하면 손으로 색연필을 들고 줄을 치거나 각종 표시를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경고의 말씀, 회개의 말씀은 주황색으로, 약속의 말씀은 빨강색으로, 꼭 기억하고 싶은 말씀에는 파랑색으로 밑줄을 치는 것 등이다.

각 장의 마지막 절에 이르면 강사와 참가자들이 모두 함께 소리내어 읽고, 끝부분에 "아멘"이라고 외친다. 새로운 장을 시작할 때는 "00장"이라고 힘차게 외친다.

낭독시간에는 일체의 잡담을 금하고 성경 읽기에만 집중해야 한다. 또 부분에 집착하기보다는 성경 전체의 흐름(맥)을 늘 염두에 두고 기억하면서 읽는다.

성경은 어떤 책인가?

성경은 1,500여 년에 걸쳐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40여명의 각각 다른 사람들에 의해 기록되어진 66권의 책을 한데 묶은 것이다.

그 40여명의 기록자는 농부, 어부, 왕, 철학자, 의사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고 사용된 언어도 히브리어, 아람어, 헬라어 등 3가지다. 그러나 성경은 무려 3,808번에 걸쳐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증거하고 있다. 성경은 이런 다양한 요소가 하나로 통일되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끌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한글 성경은?

우리 말로 완벽된 최초의 성경은 1887년에 나온 '예수성경전서'.

공인 번역성경은 1900년 신약에 이어 1911년 구약이 번역되어 '성경전서'로 출판됐다.

이어 개역에 착수하여 1936년 '개역구약전서'가 출판되었고 이어 1937년 '개역신약전서'가 완성됐다. 이를 묶은 '개역성경전서'가 1938년에 완성됐다. 이 성경은 1952년, 1956년, 1957년 약간의 손질을 거쳐 1961년 오늘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성경이 됐다.

개역개정판은 그동안의 맞춤법과 표준어 변화를 고려하여 1998년 출간됐다.

설날, 가족이 모여 드리는 예배

메시지 - 시편 79편 9 - 13절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가족이 함께 모인 오늘, 진정으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1. ‘주의 이름의 영광’은 신앙생활의 가장 고상한 표준입니다.

구약에 나오는 바벨탑은 수많은 인적 자원과 물질적 자원이 투입된 것치고 규모가 장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그 위업에 벌벌 떨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표준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대접한 냉수 한 그릇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세운 장대한 바벨탑보다도 가치 있고 더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은 그 규모에 의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것이냐에 의해서 가치가 정해집니다. 화려하고 위대한 봉사라 할지라도 자기들을 위한 것에 그치고 만다면 하나님 앞에서 그것은 바벨탑에 불

예배순서

인도: 가족 중 어른

목도		다함께
성시	 시편 23편 1 ~ 6절	인도자
찬송	 460장	다함께
기도(또는 사도신경)		가족중(다함께)
성경봉독	 시편 79:9 - 13	인도자
메시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인도자
찬송	 40장	다함께
주기도문		다함께

파한 것입니다. ‘주의 이름’만이 우리 신앙의 가장 고상한 표준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도움을 구하는 시인의 기도는 자기 명리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이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가족 각자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과 함께,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하여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2. ‘주의 이름의 영광’은 신앙생활의 가장 안전한 기준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며 안전제일주의를 표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들겨 보고 안전하다고 여겼던 다리

도 흔들리고 무너지는 날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의 건짐을 구하는 기도는 곧 하나님께서 붙잡으셔야만 안전할 수 있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힘을 주셔야만 비로소 우리가 존재하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행동하는 모든 것에 가장 안전한 기준이 있다면 주의 이름의 영광 뿐입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건 간에 진실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있는 일이라면 사회정의나 국민복리에 위배될 리 없고, 교회에 덕을 세우지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날에도 우리 가족 모

두는 사랑과 감사와 기쁨으로 부지런히 일해야 할 터인데 그 모든 일의 기준은 주의 이름의 영광에 두어야 합니다.

3. ‘주의 이름의 영광’은 가장 힘 있는 기도의 근거가 됩니다.

자신의 부족과 무능을 깨달은 자만이 무릎을 꿇고 기도함으로 전능자의 힘을 덧입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로 자신의 부족과 연약한 채우려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열납하시는 기도는 주의 이름의 영광을 찾는 기도입니다.

시편 기자는 죄사함을 간구하며 주의 이름의 영광을 구하고 있습니다. 죄사하심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을 짓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서울교회 새 예배당을 속히 짓게 해 달라고 부단히 기도하는 한 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여, 주의 이름의 영광만이 우리 신앙과 생활의 동기가 되고, 목표가 되고, 방법이 되게 하옵소서!”

대학부수련회를 마치고

신선한 공동체 생활 체험

홍서연(대학부)

‘수련회’ 하면 말씀·찬양·기도, 말씀·찬양·기도의 반복만 생각한다. 하지만 이번 대학부 겨울수련회는 달랐다. 우선 이번 수련회의 초점은 공동체생활훈련이었다. 함께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자세, 나누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 이것을 대학부 전체가 동시에 할 수 없어서 학년별로 즉 각 연생별(대학부에는 75년생부터 80년생까지가 있음) 모여서 함께 정해진 시간을 활용하여 공동체 생활을 실천했다.

말씀을 들을 기회는 4번 있었다. 박귀환 목사님께서 로마서를 가지고 우리에게 범죄한 인간의 운명과 하나님의 구원방법을 두 차례에 걸쳐 말씀해 주셨다. 이중윤 목사님께서는 “청지기과 언어봉사”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잘못된 언어습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지적해 주시면서 바른 언어생활에 관해 강의해 주셨다. 오정수 장로님은 삶의 간증을 통해 우리에게 힘을 주셨고 어디서는 열심을 다하라고 격려해 주셨다.

무엇보다 학년별 모임을 통해 서로를 잘 알 수 있었던 참 귀한 수련회였다. 함께 기도하며 나누며 음식을 만들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운동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었고 산책을 하며 자연과의 시간도 만끽할 수 있었다. 도끼로 나무도 잘라보고 불을 피워 물도 데우고 고기도 구워먹어 보았다.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이런 체험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이 감사하다.

그리고 수련회를 할 때마다 고마운 분들이 있다. 우리 대학부의 선생님들, 학부모님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 후원금을 보내 주시고 음식과 간식을 제공해 주신 여러분들, 봉사해 주신 집사님들, 수련회에 오셔서 격려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린다.

조건없는 사랑을 원한다면 와 보라!

박경원(대학부)

“하나님, 전 수학이 약해요. 4번으로 찍을 테니 맞게 해 주세요.”

대학부에서의 신앙생활 중 이 기도는 한번도 응답을 얻지 못했다. 어쩌면 삼수생인 입장에서 대학부 내 신앙 생활은 애당초 불가능한 것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대학, 그것도 좀더 나은 대학에 가려면, 주일에도 밤을 새워가며 공부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이다. “대학부 나오면 다 하나님이 채워 주신다.” 쉽게 들을 수 있는 말이다. 그러나 나로서는 그런 말들을 이해할 수는 없었다. 무엇이 채워지는지, 무엇을 채워주실지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여태 바라는 대로 점수를 채워주시지 않으셨던 것이다.

그러나 누가 어떻게 채수하는 후배에게 대학부로 오라 할 수 있겠는가고 묻는다면 꼭 말하고 싶은 것이 있다. 사랑이라면 불가능을 가능케 한다고 했다가. 사랑이란 너무 거창하고도 정말 대단한 것인지도 모른다. 난 그동안 엄청난 사랑을 찾고 갈구했다. 외국 영화 속에서 낭떠러지에 간신히 매달려 있던 두 사람의 대사까지 떠올렸다. “You go, we go.” 그 엄청난 사랑을 찾고 싶었다. 불 속이라도 날 위해 뛰어 들 사람, 그 사람의 사랑을. 그런데 어디서도 그런 사랑이 있을 것 같지 않았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조용히 들린 한 음성 때문에 조금이나마 그 사랑을 알

게 됐다.

“경원아, 난 변함없이 널 사랑한다.”

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한다는 바로 그 주님의 사랑이 곁에 있었던 것이다.

대학부 내에서 한창 뜨겁게 불타오르는 그 폭발적 사랑의 불길까지는 아닐지도 모른다. 그러나 조용하고 미세하게 내 마음과 영혼을 울리는 그 사랑이 이미 오셔서 비록 어려운 처지일 망정 나를 다독겨 주셨던 것이다. 그 사랑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품은 지체들을 만나고, 조건 없는 그 사랑을 얻기를 원한다면 대학부 만한 곳은 없을 것 같다. 이제 사랑하는 후배, 친구들에게 감히 말하고 싶다. “주님과 고요히, 대학부 지체들과 진실되게 만나려면 대학부로 와 보라”고.

순례자 컬럼

실업(失業)의 상처

첫째, 충격이다. 당해보지 않고는 그 수치심과 배신감, 불신감을 이해하기 어려운 만큼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둘째, 비관적이다. 처음엔 충격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충격보다는 전망이 보이지 않고 저축은 바닥이 보이면서 현실 앞에서 의기소침해지고 사기가 떨어지고 좌절감에 빠지게 된다.

셋째, 운명론에 빠지게 된다. 결국 모든 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인생을 포기하거나 체념한 채 외부와의 교제를 차단하고 다른 돌출구를 찾아 예기치 않은 일들을 벌일 수가 있다.

해결책과 완화책이 없을까? 교회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우선 실업자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먼저 변해야 한다. 프로테스탄트 직업 윤리에 의한 근면, 성실, 창의, 근검 정신이 결여된 낙오자로 보아서는 안된다.

그리고 교회의 적극적인 행동주의가 필요하다. 시민대학을 개설하여 직업 교육을 시켜 주거나 휴게소,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여 그들로 하여금 재기의 기회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동과 고용을 구별시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생의 의미와 보람을 갖게 해야 한다. 모든 고용은 노동이지만 모든 노동은 고용이 아니다. 아담은 노동했지만 수당을 받지 않았다. 창조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뜻 있는 일감을 제공해 줌으로 소득은 없지만 자기 실현의식을 갖게 해야 한다.

우리 전도회

작은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겠습니다

허숙(집사, 루디아 제6전도회장)

모두가 힘들고 바쁜 이 때에 물질과 시간을 투자하여 남을 돕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자를 돕고 싶은 것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의 바람이며 또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 것입니다. 봉사란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도 힘을 합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하신 줄 압니다.

송파구와 분당, 그리고 수지, 용인 지역에 거주하는 루디아 6지회는 올해부터 작은 봉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물론 물질로 도울 수도 있지만 직접 현장을 찾아 나서기로 했습니다.

한 그룹 안에는 늘 여러 가지의 달란트를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기 마련입니다. 저희 지회도 마찬가지로 레크레이션, 미용 등의 달란트를 가진 회원이 있고 특히 회원 모두가 섬김의 달란트를 가지셨기 때문에 쉽게 마음이 모여져서 이번 일을 준비를 할 수 있었습니다.

우선은 거리가 가까와야 봉사가 더 쉬운 것 같아서 송파구민회관으로부터 몇 군데 추천을 받았고 그 중 우리의 인원과 능력에 가장 적합한 곳을 찾아 저희 전도회의 취지를 전달했습니다. 그 곳은 지체장애자와 시각장애자가 성인 30명, 아동 10명 등 모두 40여명이 공동체생활을 하는 재활원입니다. 놀랍게도 그곳을 운영하시는 목사님은 고관절염이라고 하는 전신이 점점 굳어져가는 병을 앓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시무하시는 교회의 회원들도 주로 장애자들과 그들의 가족이라고 합니다. 이 곳은 장애자들의 재활작업을 통한

약간의 수익금과 외부에서 보조되는 금액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한 번도 헛발거나 굶어본 적이 없다고 하시며 입히시고 먹이시는 주님께 감사하는 그 분들 바라보며 오히려 저희들의 마음이 송구할 뿐이었습니다.

저희들은 그곳에서 중식 봉사, 작업 보조를 하게 되고 날이 따뜻해지면 목욕과 미용, 세탁 등의 봉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봉사보다는 주 안에서 한 지체인 것을 확인하는 영적 교제에 더 치중하려고 합니다.

어느 곳이든 장애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봉사자들이 한 번씩 왔다 가면 정상인들에 대한 저들의 스트레스가 심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 한 마디, 행동 하나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는 인간의 열심히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하려고 노력합니다. 저희들이 서울교회에서 왔다고 하니 목사님께서 “이중윤 목사님께서 시무하시는 교회입니까?” 라고 반문하시어서 잠시 당황했습니다. 서울교회 회원으로서 저희들의 책임이 막중하고 매사를 신중히 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미약한 가운데 시작을 했지만 주님께 서 때마다 일마다 새로운 힘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비단 장사를 하여 주의 종을 섬긴 루디아처럼 저희도 열심을 내어 교회를 섬기고 회원 간에는 서로 종이 되는 심정으로 위하여 기도하고 섬기며 시작한 봉사가도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 능어촌 100교회운동

결연 교회와 후원자 현황

번호	교회명	소재지	교역자(직분)	후원자
1	계곡제일교회	전남 해남군 계곡면 법곡리	최승위(전)	홍순복
2	고함교회	경북 예천군 상리면 고함리	김권환(전)	박순옥
3	곤천리교회	경북 김천시 봉산면 광천동	권오익(목)	이관규
4	광곡교회	전북 완주군 구이면 광곡리	장대호(목)	안인호 · 이명신
5	굴암교회	전북 무주군 부남면 상굴암리	최효임(전)	루디아3전도회
6	금성교회	전남 나주시 노안면 금안리	장성도(목)	루디아5전도회
7	금성교회	경북 의성군 금성면 도경리	김상두(목)	신용식
8	금평교회	경남 남해군 이동면 금평리	오성현(전)	하인선 · 남태순
9	금호교회	충북 영동군 심천면 기호리	김신우(목)	가브리엘찬양대
10	남창제일교회	울산시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김길태(목)	정하자
11	내포중앙교회	전북 무주군 무주읍 내도리	장강현(전)	사랑의회
12	동화교회	전북 장수군 변암면 동화리	전갑희(목)	박두호 · 한성옥
13	둔병교회	전남 여수시 화정면 둔병리	류한복(목)	새가족부
14	마산동부교회	전남 구례군 마산면 사도리	김영재(전)	베드로6전교회
15	마장교회	충남 금산군 남일면 마장리	김철우(목)	한나1전도회
16	마장교회	경기 이천시 마장면 양촌리	주추산(전)	한나1전도회
17	명계교회	경북 안동시 와룡면 감애리	박점용(목)	루디아6전도회
18	명학반석교회	충남 연기군 동면 명학리	임희수(전)	임광식
19	목소교회	충남 금산군 복수면 목소리	백현기(전)	김복녀
20	모악제일교회	전북 완주군 구이면 원기리	안양옥(전)	김범태
21	목왕교회	경기 양평군 양서면 목왕리	김기영(목)	모세선교회
22	목포열린교회	전남 목포시 산정 1동	장경호(목)	마리아전도회연합
23	박산교회	경북 영주시 이산면 용산1리	황성배(전)	루디아1전도회
24	백마교회	경북 김천시 농소면 노곡리	김우동(전)	루디아1전도회
25	백진교회	경남 함양군 백전면 평천리	안희선(목)	최학인 · 최소희
26	봉암교회	전남 고흥군 도양읍 봉암리	김영구(전)	스데반회
27	봉정교회	전남 곡성군 죽곡면 봉정리	정창석(전)	스데반회
28	부남명성교회	경북 청송군 부남면 대전리	윤성목(목)	김현주
29	북면중앙교회	전북 정읍시 북면 현교리	문종안(전)	제1권사회
30	사목번영교회	경기 파주시 문산읍 사목리	김순덕(전)	이강현 · 한정아
31	사봉로교회	경남 진주시 사북면 사곡리	김태완(강)	바울1선교회
32	산야교회	경북 안동시 와룡면 산야리	이형근(목)	바울1선교회
33	산전교회	경북 경산시 남천면 대명리	김영규(목)	김중복
34	삼진교회	충남 아산시 송악면 유곡리	계용권(전)	이강인
35	상리교회	경북 예천군 상리면 도촌동	권광훈(전)	김상철 · 최원자
36	새화순교회	전남 화순군 화순읍 대리	정종복(목)	바울6선교회
37	서광교회	제주 남제주군 안덕면 서광리	강순오(전)	바울2선교회
38	성루교회	전남 목포시 신흥동	이진구(목)	바울5선교회

39	성법교회	경북 포항시 북구 기북면	박정하(목)	오정수
40	세광교회	전북 익산시 오산면 송학리	천상복(목)	바울3·4선교회
41	송내교회	경북 의성군 점곡면 송내리	이용빈(전)	이완형
42	송천교회	경북 영천시 청통면 송천리	정용식(전)	이훈
43	수락교회	경북 정송군 현서면 수락리	이창규(전)	잠실3·루디아4
44	수북교회	전남 담양군 수북면 풍수리	김기용(목)	이영기
45	송원교회	충남 공주시 유구읍 문금1리	김종권(전)	최재영 · 고후덕
46	시온교회	전남 강진군 마량면 속마리	임대준(전)	반포1·2·4
47	신덕교회	충남 보령시 천북면 신덕리	유재운(전)	한나2전도회
48	신산교회	충남 천안군 입장면 기로리	심규백(목)	한나2전도회
49	신암교회	충남 부여군 초촌면 신암리	김애자(전)	한나2전도회
50	신진교회	전남 진도군 고군면 오일시리	조원식(목)	김해입 · 정정덕
51	신촌교회	전남 고흥군 금산면 신촌리	이성규(전)	서초1·2다락방
52	신촌교회	경북 고령군 쌍림면 신촌리	권영관(전)	정동학 · 김복순
53	압곡교회	전남 순천시 서면 압곡리	서양수(목)	신순우 · 김복순
54	양평교회	경북 영양군 영양읍 현2리	이순화(전)	신순우 · 김복순
55	인양영신교회	경남 울주군 언양읍 서부리	오주철(목)	신순우 · 김복순
56	여천동교회	전남 여천군 남면 유송리	정철기(전)	신순우 · 김복순
57	영광교회	전북 진안군 주천면 무릉리	이양재(전)	신순우 · 김복순
58	예덕교회	전북 정읍시 산내면 예덕리	한상인(전)	정무균 · 이영희
59	용신교회	충남 태안군 근흥면 용신 1구	박명환(목)	에스더6전도회
60	운암제일교회	전북 임실군 운암면 쌍암리	김상중(목)	에스더5전도회
61	울곡교회	경북 김천시 지례면 울곡리	엄산덕(전)	에스더4전도회
62	월송교회	전북 김제시 부량면 월송리	김은진(목)	에스더2전도회
63	월전교회	경북 문경시 신북면 월전리	김승규(전)	에스더1전도회
64	월평성광교회	경남 진주시 집현면 장흥리	강용태(전)	최재규 · 천정화
65	은성교회	충북 청원군 강외면 만수리	소정의(목)	이옥녀 · 김병호
66	정립중앙교회	경기 화성군 정남면 망월리	정해술(목)	이임희 · 백영희
67	주왕산교회	경북 청송군 부동면 상의리	이희구(전)	이선근 · 김영립
68	청풍은성교회	전남 화순군 청풍면 세정리	이호근(전)	에스더3·베드로4
69	춘양농아인교회	경북 봉화군 춘양면 의양리	이종순(전)	베드로1선교회
70	태백서부교회	강원 태백시 화진 2동	주영철(전)	베드로2선교회
71	풍각제2교회	경북 청도군 풍각면 봉기리	김학경(전)	루디아2전도회
72	행정교회	전남 장성군 남면 행정리	홍두원(전)	전기섭 · 원영애
73	화평장애인교회	서울 도봉구 도봉 2동	김구열(목)	홍일성 · 이명아
74	황향교회	경북 김천시 증산면 황향리	한덕순(전)	이남성 · 최영란
75	흑석교회	경북 청도군 풍각면 흑석리	홍중기(전)	김태선

1999년 2월 13일 현재(후원자는 무순)

동정

- * 이종운 목사는 18일(목) 기독교교도소설립추진위 운영위원회를 소집한다. 그리고 기독교 목회자 제복연구소 개소식에서 설교한다. 19일(금)엔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주제위원회에 참가한다.
- * 바울1선교회는 18일(목)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기도회와 현장방문을 한다.
- * 이번 주 식사는 이옥현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 이종운 목사 방청설교 ■

기독교방송(HLKX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의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우리 가족 모두가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2. 성경통독사경회를 위해
3. 능어촌100교회운동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